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종교

'밀알의밤' 개최 남가주밀알선교단

남가주밀알선교단이 개최하는 '밀알의밤' 행사가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우리는 가족(We Are Family!, 갈라디아서 6장10절)' 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밀알의 밤' 에는 특히 한국의 개그맨 김영철 씨가 게스트로 나와 그의 인생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김 씨는 1999년 KBS 14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으며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밀알의밤을 통해 모금된 수익금 전액은 장애인 학생들에게 '2024 밀알장학금' 으로 지급된다. 티켓 가격은 20달러이다.

- 밀알의밤 행사일시와 장소는 다음과 같다.
- 29일 오후 7시30분, ANC 온누리교회(10000 Foothill Blvd., Lake View Terrace, CA 91342)
 - 30일 오후 7시, 주님의영광교회(1801 S Grand Ave., LA, CA 90015)
 - 10월1일 오후 7시, 감사한인교회(69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0)

▶ 문의: (562) 229-0001, admin@milalsca.org

찬양선교음악회 미주 찬양선교회

미주찬양선교회(회장 이재근 목사)가 찬송가 보급, 찬양사역자와 찬양팀을 돕기 위해 주최하는 '제9회 찬양선교음악회' 가 오는 10월 8일(일) 오후 6시 30분 세리토스에 있는 생수의강선교교회 (담임목사 최형규, 19200 Pioneer Blvd., Cerritos, CA 90703)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남가주 장로성가단, LA남성선교합창단, 오렌지 미션콤파이어, 남가주 장로중창단, LA 목사중창단, 소노라스 싱어즈, 바리톤 장상근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찬양을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는 무료로 진행된다.

▶ 문의: (562) 714-0691



비둘기와 까마귀(창 8:6~12, 마 10:16)

오늘은 해방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36년의 일제 강압에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과 자유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맛보며, 완전 통일을 맞아 참 해방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영육의 해방을 누리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둘기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려 보내도 다시 돌아옵니다. 비둘기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자유와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비둘기의 이미지는 늘 좋은 편입니다.

비둘기는 비둘기과에 속하는 새의 총칭입니다. 지구상에는 약 300종의 비둘기과 조류가 있다고 합니다. 비둘기는 평지와 산지,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새입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요즘 천덕꾸러기입니다. 어떤 인터넷 글에는 비둘기가 너무 많고 귀찮아 아예 죽이려고 독약을 놓았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천대받게 된 것입니다.

까마귀는 우리말로 '가막이' 라고도 씁니다. 까마귀는 전 세계에 약 100종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밭이나 마을 부근에서 곡식남알, 곤충류, 거미류, 작은 동물 그리고 동물의 사체 등을 먹으며, 식물성 먹이도 많이 먹는 편입니다.

성경은 비둘기를 돌아갈 줄 아는 새, 주인을 아는 새로 묘사합니다. 주인이나 자기 자리로 돌아갈 줄 아는 것은 평화이며 자유입니다. 아기가 엄마 품을 떠나서 자유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자유가 없습니다. 새가 공기를 떠나서 자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자유이며 평안입니다.

까마귀는 자기 맘대로 돌아다니는



새입니다. 이런 마음이 자유 같지만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 가출한 청소년이 자유롭습니까? 돌아올 줄 모르는 자는 자유도 모릅니다. 돌아갈 곳을 아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합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 찬송에는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이 여름에 동물들을 비교하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까마귀가 아니라 비둘기 같은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돌아설 줄 알고, 돌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본래의 곳으로 돌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 돌아갈 줄 모르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돌아갈 고향이 있어야 합니다.

'노마드'란 유목민이란 뜻입니다. 현대에 이리저리 정착하지 않고 돌아다니며 사는 사람들을 '네오 노마드'라고 합니다. 새로운 유목민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다 유목민 같아서 필요하면 세상에 살다가 얼른 천막을 걷고 돌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14에는 "분향을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란 말씀이 있습니다.

다. 16절에는 "저희가 더 나은 분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귀소성(Backing Home Instinct)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귀소본능은 동물이 자기의 서식처나 둥지로 돌아오는 성질과 능력을 말합니다. 자신의 집이나 산란장으로 돌아가려는 본능을 말합니다. 철새나 꿀벌이나 연어나 비둘기 등이 귀소본능이 가장 발달한 동물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사람들도 분향으로 돌아가려는 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는 멀리 갔던 아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온 아들의 돌아오는 목적이 별로 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돌아온 그 자체를 아버지는 기뻐하십니다. 돌아옴은 그 자체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잘못을 범했어도 돌아올 줄 알아야 합니다. 아예 포기하고 안 돌아온다면 그것은 그 나쁜 것입니다. 돌아오면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비둘기처럼 세상에서 돌아올 줄 알아 순결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성희 목사-

일러스트=shutterstock

한남체인 내 코웨이 & 실드라이프

Covid-19 소독제품
여러종류 마스크 판매

정수기 / 비데 / 공기청정기 / 연수기
실드라이프 전기매트, 전기장판

정수기 판매 및 렌탈

714.523.9588 / 714.471.1843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한남체인 내